

다양한 장르 공연으로 풍성한 한해 마무리~

●12월 광주상설공연

코끝 시린 겨울, 추운 날씨와 함께 찾아온 12월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예술의전당이 발레, 오페라, 합창 등 다채로운 광주상설공연 무대로 시민들을 찾는다.

크리스마스 대표발레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부터 동서양 조화 이룬 국악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까지

첫 공연은 1일 타악그룹 얼쑤의 '광주노정기, 토선생 찾기'로 시작된다. 2024 전통예술공연 작품 공모 선정작인 이 작품은 우리에게 친숙한 고전문학 '별주부전'을 각색한 타악 및 판소리 가족극이다. 지역 대표 명소를 돌아다니는 별주부를 통해 광주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7일 토요일 상설공연 첫 무대로는 광주시립발레단이 나서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를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속 여행을 하는 내용으로, 차이콥스키의 친근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과 화려한 무대미술, 다양한 캐릭터로 사랑받는 작품이다. 볼거리 풍부한 발레 무대를 통해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에는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이 무대에 오른다. 원작을 충실하게 축약한 공연으로, 오페라단의 재치, 편안한 해설과 함께 어느새 이탈리아 작은 시골 마을로 오페라 여행을 떠나게 된다.

21일에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창작뮤지컬 '나를 노래해' 무대가 마련됐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문제아라고 낙인 찍힌 아이들이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해가는 과정을 통해 치유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13일과 20일 오후 7시에는 광주 예술의전당 특별 공연이 준비돼 있다. 13일에는 프로방스 색소폰 앙상블의 '송년의 밤' 무대가 펼쳐진다. 아름다운 음색과 조화로운 색소폰 선율이 겨울밤을 물들일 예정이다. 연말 공연에 어울리는 캐럴 메들리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20일에는 '명인 협연의 밤' 공연이 진행된다. (사)창작국악단 도드리 반주에 맞춰 명인들의 풍성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서양음악의 요소를 결합해 대중들이 보다 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프로그램 중 '아름다운 광주'는 중독성 있는 장단 속 광주의 역사와 현재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이다. 이와 함께 풍물놀이 중 우도 농악

판곡의 화려한 가락 위 아름다운 동작들로 표현되는 '버꾸춤'을 만나볼 수 있다.

2024 광주상설공연은 다음달 22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모든 좌석은 무료로 사전 예매가 필요하다. 티켓링크 또는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최명진 기자

'화평을 꿈꾸며'...남도국악원 올해 마지막 상설공연

30일 '악화민성' 주제...아리랑·모듬북 합주 등

악화민성(樂和民聲), 음악은 사람의 소리를 화평하게 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의 올해 마지막 상설공연 '국악의 향연'이 오는 30일 오후 3시 대극장 전야당에서 펼쳐진다. '악화민성'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노부영 남도국악원 예술감독의 지휘로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국악관

현악 연주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연은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을 주제로 한 백대용 작곡 '남도아리랑'으로 시작된다. 이어 지선화 남도국악원 단원이 김희조 편곡의 장과 관현악 중 '심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북'을 선보인다.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아쟁산조 이수



자이자 진도 출신의 김영길 명인의 '한일 섭류아쟁산조 협주곡'도 무대에 오른다. 다음으로 진도 토속민요(매화타령·방아타령·도화타령·물레타령·동덩에타령)를 국악관현악 구성으로 편곡한

김백찬 작곡의 '오곡타령'이 남도국악원 성악단 단원들의 소리로 펼쳐진다. 마지막 무대는 박범훈 작곡의 사물놀이를 위한 합주곡 '모듬북'이다.

/최명진 기자



감사 노래 전하는 '그라시아스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광주 공연 성료

2회 공연 만석, 취약계층 관람도 지원

그라시아스합창단의 2024 크리스마스 칸타타 광주 공연이 지난 26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2회 공연으로 이뤄진 이날 공연은 모두 만석을 이루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등 3천여명이 함께한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광주공연은 소외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연말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자리가 됐다.

던킨도넛진월점·침단점, 베비에르봉선점, 라라브레드담양점, 전남 철강(주), 해동엔지니어링(주), 그린카진흥원, 문화실험침단점 등 지역 기업 후원으로 청소년 및 독거노인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총 3악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오페라·뮤지컬·합창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1막 오페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에서는 2천년 전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예수 탄생의 배경을 다뤘다. 2막 공연 시작 전에는 꼬마 산타들의 캐롤송 무대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지는 2막 뮤지컬에서는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각색한 '안나의 크리스마스', 3막 합창에서는 새 희망을 노래하는 '현델의 오라토리오'로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그라시아스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다음달 7일 목포시 민문화체육센터 공연을 앞두고 있다. /최명진 기자

꽃과 향기... '함께 이어지는 순간, 틱우다'

방행례·전순덕·권민영 3인전 30일까지 시청 시민홀서 전시

(사)한국예술문화연합회 소속 향장학 전문가 방행례·권민영, 아트플라워 작가 전순덕 3인이 펼치는 향장 작품 전시가 마련됐다. (사진)

'함께 이어지는 순간, 틱우다'를 주제로 한 특별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다.

3인 작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새롭게 개발한 향수가 조화를 이룬 전시로, 일상의 고단함 속 잊고 지냈던 감각을 깨우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시는 총 세 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햇빛을 따라 싱그럽게 피어나는 꽃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BEFORE SUNRISE', 장미꽃에 세대를 넘어선 교류와 문화를 더해 소통의 길을 여는



공간 'DEAR. ROSE', 흐르는 물을 따라 자유로이 유평하는 것처럼 일상의 답답함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자유를 발견하는 'WALK ON WATER' 색션이다.

전시 참여작가인 방행례 한국예술문화연합회 상임이사는 "새롭게 꽃을 피우는 생명의 오묘한 순간에 향기를 더한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자유와 희망, 순수한 열정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